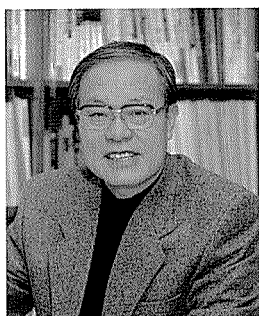


절망의 마음자리에 핀 '희망의 꽃'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과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이다.
나라꼴이 엉망이다.
병원의 응급실처럼
고통스런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듯 하다.
이런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원망의 목소리 보다
희망의 미소가 아닌가 싶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다.



글 / 최 해 병

- 한국휠드마케팅연구원장
 - 한국생산성본부 자문위원
 - 기업체 및 각종 외식업체, 제과점 직원교육 담당
- ☎ (02)877-9970

두 사람이 모함을 당했다. 그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고, 같은 감방에 갇히게 되었다. 수감생활이 차츰 익숙해질 무렵, 숨소리조차 얼어붙을 것 같은 추운 겨울날 밤,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창을 통해 문득 바깥 세상으로 눈을 돌린다.

그러나 같은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지만 둘의 마음은 아주 대조적이다. 한 사람은 쇠붙이로 된 창살을 보며 한탄과 원망으로 몸부림을 친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밤하늘에 초롱초롱 빛나는 별을 보며 희망을 갈무리한다. 결국 세상을 원망하던 사람은 출감 후 또 다시 감옥을 찾아 왔고 다른 한 사람은 시인이 되었다고 한다.

한 사람은 부당한 감옥살이에 절망과 저주스런 칼갈음으로 자신을 짓이겼으며, 다른 한 사람은 내일을 바라보는 희망의 꽃을 그의 마음자리에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스스로 돕는 사람들

간혹 택시를 타게 되면 운전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것이 여간 재미나는 게 아니다. 그들이 겪은 손님들의 경험담과 각종 생활 정보, 때로는 자신이 살아 온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한편 택시 기사의 성격이나 운전 스타일도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다.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 말없이 냉담한 사람 등 천태만상이다. 그러나 세상살이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늘 세상과 가까이 접하고 있는 택시기사와의 대화가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끔 느끼게 된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타더라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는 어느 택시기사를 만났다. 그는 "어서 오십시오"라며 친절하게 인사를 했다. 대개는 아무말 없이 승차 손님을 맞는 것이 우리 택시기사들 아닌가.

그는 여러 손님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그 손님을 목적지까지 기분 좋게 모시는 일이 보람이요, 행복의 비결이라 한다. 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오래전 자신이 과로하여 위장을 앓고 있을 때 마침 어느 손님이 식이요법과 체력단련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게 계기였다. 긍정적인 태도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손님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밝게 가꿔 주기도 한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매사를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실패하는 사람은 매사를 남의 탓으로만 돌린다.

다음은 필자가 의정부행 전철 안에서 우연히 만난 등산복 차림의 어느 멋진 노신사와의 대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자신이 경제기획원에서 20여년을 근무했고, 지금은 본격적으로 자기사업을 한다고 하여 처음에는 무엇인가 대단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상상했었다.

알고 보니 초대 장기영 부총리를 비롯해 역대 경제기획원 장관의 머리가 자기 손을 거쳐 갔다는 이야기다. 이야기는 이렇다. 그는 경제기획원 구내 이용원 이발사로 근무했었는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다. 아무리 높은 고위층 인사라 하더라도 누구나 자기 앞에서는 머리를 숙여야 했다.

그는 현재 천안에서 영업을 하는데 수입도 짝잘하고,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가 대단한 이발사다. 자식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생활 한다는 이야기를 뽕뽕하고 자랑스럽게 했다.

실패율을 배가 시켜라!

성공적인 사람들은 실패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IBM회사의 창설자 토마스 J 윌슨 씨는 “성공하려거든 실패율을 배가시켜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은 성공한 사람들이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는 뜻이다.

세계적인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도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되풀이하던 사람이다. 1,052개의 특허를 따낸 발명왕이었지만 역사상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을 정도다. 전구 실험 중 5,000번째의 실험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기자가 찾아가서 “에디슨 선생님 5,000번이나 실패하셨는데 또 그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계속하실 겁니까?”라고 물었을 때 에디슨은 “그건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 지금까지 5,000가지의 오류를 새롭게 발견하고 확인했으니 그만큼 성공에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전구는 그의 손에 의해서 발명됐던 것이다.

지금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사실 기막힌 어려움을 극복한 불굴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군에서 65세에 은퇴를 했던 미국의 샌더스 대령이 집에서 한가하게 지내고 있을 때 문득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이 있었다. 어려서 어머니가 해주던 잇을 수 없는 치킨 맛을 상품용 치킨 조리법에 적용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는 곧바로 이를 연구 개발하여 미국 전역에 있는 많은 식당을 일일이 돌며 조리법 소개하였으나 모조리 거절당할 가운데 1,000번째 집에서 한 번 해보자는 승낙을 얻어낸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미국 전역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체인을 만들 수 있었다. 그가 처음에 품은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간 그의 정신력을 높이 평가할 만 하다. 그가 1980년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가 남긴 사업은 세계 도처를 거미줄처럼 뻗어 나가고 있다. 그는 수없이 거절도 당하고 조롱도 받았으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불굴의 인내로 이를 극복했다.

유명한 마라톤 선수들의 뒷얘기를 들어보면 경기도중 포기해 버리고 싶은 유혹이 빗발치듯 몰려온다고 한다. 그들은 유혹이 깊어질 수록 끝인지점을 향한 희망을 잃지 않고 뛰고 또 뛰는 것이다. 즉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신념의 소산이다.

중소기업을 하는 사장들 가운데도 사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사를 내놓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한다. 그때마다 그들은 사명감과 기업가 정신으로 다짐하고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어 성공적인 기업으로 육성하는 보람을 체험한다.

상상력의 놀라운 힘

삼풍백화점 붕괴, 광 KAL기 추락 사건 등 이러한 대형사고에서 살아 남은 사람들의 힘이 어디에서 솟아 나는 것일까.

그 참상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희망을 버리지 않는 생명에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있다가 살아 나온 젊은이들은 생명의 불이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 같은 고통스런 암흑 속에서도 지난날의 기쁜 추억들을 끊임없이 회상하면서 끈기있게 버텼다는 것이다.

KAL기 추락 현장에서 들것에 실려 나온 소녀가 흰곰 인형을 안고 있는 장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준다. 즉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웠던 경험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한다.

2차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물리적인 환경보다 끝까지 생존하려는 삶의 의지와 그 가운데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으며 포기하지 않은 힘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비규환의 처절한 수용소에서조차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존의 힘이 과거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다양한 정신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연구를 통해 ‘의미치료법’을 개발한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크 박사의 업적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주변 생활에서 좋은 것을 찾아내고 모방하자. 무엇이든 유익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기자. 좋은 정신경험을 많이 쌓아 우리 삶을 좀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도록 하자. 좋은 경험이란 사진을 마음의 사진첩에 차곡차곡 쌓아 두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펼쳐보면서 자신감을 갖고 인생을 힘차게 살도록 권하고 싶은 요즘이다. **161**

